

하이(Hi) 틴 공부합시다

고구려·발해史까지 중국역사에 편입 시도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요?

중국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6회 동계아시안 게임'을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흥보장으로 활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각국 최재진들로 불리는 베인프레스센터에 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창바이산 보호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된 책자와 CD를 배포한 것이지요. 책자 표지에는 우리 겨레의 영산(靈山) 백두산이 버젓이 '중국 자연유산 창바이산'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중외신문(中外新聞)이 밭행한 뉴스레터가 각국 기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천자를 배경으로 동계아시안게임 불씨를 제작하는 사진이 실려있었다고 합니다. 40여 아시아인의 축제인 동계아시안게임을 마치 창바이산과 천자를 알리는 흥보장으로 작각하게 만든 것이지요.



중국이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을 대회와 무관한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흥보장으로 활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회 쇼트트랙 여자 5천m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팀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문구를 들고 시상대에 올라 백두산이 우리 겨레의 영산(靈山)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1. 아시안게임 '창바이산' 흥보

중국이 천지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창바이산 흥보가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 일대에서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백두산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백두산 인근 18개 초·중·고교의 학교 이름 앞에 '창바이산'이란 이름을 붙여 교명을 모두 바꿨다고 합니다. 백두산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지요.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창바이산을 널리 흥보한 것은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하이룽강성(黑龍江省) 등 둥베이(東北) 3성을 무대로 펼쳐졌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을 얻고 있습니다.

2.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은 동북번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

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

원과 둥베이 3성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지난 2002

中 소수민족 이탈 방지 위해 동북공정 추진

한국 고대사 지키기 장기 대응책 마련해야

년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년 동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위만조선은 한(漢)의 신하이며 발해는 당 왕조에 속한 지방 정권,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동북공정의 목적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소수 민족 이탈과 영토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티베트처럼 소수 민족들이 각자 독립을 요구할 경우 훈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둥베이 3성에 밀집된 조선족이 한반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행여 일어날 수도 있는 영토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국경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 역사 문제를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국경과 영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바로 그런 영토문제와 관련된 역사문제가 중요

하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뿐 아니라 고조선에서 간도 문제까지 한국사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도 및 한·중 국경문제, 국경 이론, 민족문제들이 고구려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다뤄졌다는 것을 보면 국경문제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중국 정부의 이중성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004년 한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일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2년 27개였던 공모 과제가 2003년 14개, 2004년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동북공정을 주도해왔던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에 소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은밀히 동북공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린성 사회과학원이 2004년 창간한 '동북사지'에는 2004~2006년 3년 동안 무려 301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301편 중 고구려 관계 논문은 106편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또 고조선 관계 논문 9편, 발해 관련 논문 17편, 창바이

산(백두산) 관련 논문 21편 등 동북공정보다 훨씬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당국만 바꾼 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한국 고대사 침탈 심화

지난달 29일 고구려연구회(회장 한규철) 주최로 열린 '중국의 동북공정 5년, 그 성과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길수 서경대 교수는 '동북공정은 1981년 시작된 '다민족통일국가론'의 10단계 중 8단계 과정에 불과하며 마지막 단계인 2006년 시작된 제2차 중화문명 탐원(探源) 공정에서 한국 고대사 침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동북공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중국 당국의 거시적 행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국 민족통합을 위해 고구려뿐 아니라 발해사를 비롯한 모든 한국사가 말려들어 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라오위(遼河)지방의 역사가 포함되는 제2차 탐원공정이 국가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라오위 지방은 부여와 고구려의 활동무대였습니다.

이날 반병률(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장)도 "학계가 초기 대응에서 '고구려사 빼앗기' 정도로 파악하고 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새로운 논리 개발에 미친했다"며 "동북공정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中동북공정 추진 일정

83년 '변강역사연구' 설립

2004년 한·중 외교문제 비화

2006년 언론보도 다시 쟁점화

동북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국무원 직속으로 장기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다음은 동북공정이 추진돼 온 주요 일정입니다.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 설립.

◇1998년 9월 변강사지연구중심, '현대 중국 변화 조사연구' 가운데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출.

◇2000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 중국 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계획 비준·승인.

◇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라오닝·자린·헤이룽강 등 3성이 공동으로 1천500만위안(약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동북공정) 출범.

◇2004년 6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매체에서 보도, 한·중 사이 외교문제로 비화.

◇2004년 8월 24일 한·중,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않고 학술 연구에 맡기며, 역사교과서 등에 '한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다섯 항으로 이뤄진 '구두합의'.

◇2006년 9월 한국 매체의 보도로 '동북공정' 다시 쟁점화.

◇2007년 1월 28~2월 4일 중국이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6회 동계아시안 게임'을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흥보장으로 활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 다민족통일국가론 10단계

- ▲ 1단계 1981년, 중국역사민족기의 대전제·새로운 '다민족통일국가론'
- ▲ 2단계 1983년, 본격적인 국경 전문 연구기관 설립·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 ▲ 3단계 1986년, 티베트지역 전문 연구기관 설립·중국장학연구중심.
- ▲ 4단계 1990년, 중국 북부 국경(몽골)의 귀속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
- ▲ 5단계 1990년대 중반 이후, 고구려 귀속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 ▲ 6단계 1996~2000년(9차 경제·사회 5개년계획), 허상주단대공정, 전설상의 나라로 여겨지던 하나님리를 실제 국가로 공식화하는 등 자신들의 고대사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 ▲ 7단계 2001~2005년(10차 경제·사회 5개년계획), 중국고문명 탐원공정.
- ▲ 8단계 2002~2007년, 동북(東北)공정 실시.
- ▲ 9단계 2005년 이후, 신강역(新疆項目), 신강은 옛 동투르기타단(公共國有地)으로 확장화.
- ▲ 10단계 2006~2010년(11차 경제·사회 5개년계획), 중국문명 탐원공정과 리오하문명론.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3-1140, 02-101-011-022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상설서점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층 정도에 점
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우부동산

☎ 02-47-488~7 7 011-603-4788
(성선동 한일빌딩부)

건물매도

·외교도로변 한일병원부근 대
지120평 약4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4억 원대보
증금 2억 원 450만원

·외교도로변 대지84평 건물
300평 지하1층 지상5층 각층
50평 매매가 7억5천 원보증금
1억3천 원420만원 원금8억

토지매매

·한일병원부근 대지 약150평
평당 매매가 250만원

·봉동로변 대지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남구 봉선동 부동2차 정문부근
대지 약200평 2차선집 평당
평당10만원

임야매매

·남구 도동 일야 21000평
폐매가 6억 신설예정 도로인접
·남양고서 일야(대부분 전으로
이동중) 9700평 평당800만원
·남구 이장동 대지 1500평 평당35
평당60만원

생산녹지

·서구 치평동 담 6500평 4차
선도로변 평당250만원

증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 02-233-9311 ~ 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답 10,123㎡(3,062평)

농업보호구역

평당 30,000원

시설물 : 파이프비닐하우스

600평(300평 × 2)

주택 20평

전기시설 설치됨(16KW)

전화 설치됨

절반이상 녹차식재(3년)

현황 : 평탄한 지형임

(좌측) 약300m이상

계곡에 접함

(우측) 약300m이상

4m 평당로에 접함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투자분석

• 부동산 재산관리

오 건교

016-615-3000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972-4585 011-604-6205
(성남시 분당구 부평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삼소동

첨단인근 30m 도로점

1000평 공장 창고부지 적합

첨단 중심 상업지역